



제100회 전국체전을 11일 앞둔 23일, 전북도 체육회관 1층 야외광장에서 '전북 선수단 필승 결단식'이 열렸다. 이날 결단식에서는 송하진 도지사와 송성환 도의회 의장,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등을 비롯해 도 체육회 임원과 고문, 종목단체 회장, 선수단 등이 참석했다.

“전북의 영광 · 희망 · 미래”

전국체전 결단식... 전북선수단 필승 결의

“여러분이 전북의 영광 · 희망 · 미래입니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전북 선수단이 한자리에 모여 필승을 다짐했다.

23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제100회 전국체전을 11일 앞둔 이날 도 체육회관 1층 야외광장에서 '전북 선수단 필승 결단식'이 열렸다.

이날 결단식에는 송하진 지사와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등을 비롯해 도 체육회 임원과 고문, 종목단체 회장, 선수단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북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결단식은 단기 수여식을 시작으로 필승을 다짐하는 선수·지도자 대표 선서, 선수단 격려 순으로 진행됐다. 송하진 지사는 “그동안 전북 체육

은 강한 의지와 불굴의 투지로 전북의 명예를 드높여 왔다”며 “특히 지난해에는 우리 도에서 개최된 제99회 전국체전에서 종합3위라는 쾌거는 물론이고 역대 최고의 대회로 치렀다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지사는 “남은 기간 부상없이 컨디션 조절만 잘하면 전북 체육의 위상을 드높일 거라 생각한다”며 “정정당당한 승부로 도민들에게 자부심과 자긍심을 안겨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제100회 전국체전은 10월4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일원에서 열리며 이번 대회에 전북 선수단은 약 1600명(선수 1217명·임원 383명)이 출전한다.

앞서 전국체전 사전경기로 열린 체조 종목에서 전북은 금메달 5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 등 총 10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립 박차

도, 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의뢰 · 사업설명회 등 참석 금융타운 조성사업 신속 진행 위한 추가 부지 매입 완료 “도민들의 전폭 지지 필요 · 금융기관들의 협력도 절실”

제3 금융중심지 지정과 연기금 농생명 특화 금융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북 금융타운을 조성하는 전북도가 국제금융센터(JIFC)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7월 금융타운 조성사업 시급성을 요하는 국제금융센터를 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전북개발공사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후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센터는 총사업비 1158억원을 들여 금융타운 부지 중 대지면적 약 1만 2000㎡에 연면적 약 3만7000㎡ 지하2층, 지상11층의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 주요시설로는 금융기관의 사무공간,

업무편의시설, 중소기업회의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동안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는 실무회의를 통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도 상반기 중 공사 착공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센터 건립사업 타당성 용역을 수행했다.

전북도는 8월말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 타당성 조사 의뢰를 했으며 23일 사업설명회에 참석해 센터 건립 필요성과 시급성을 전달했다.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10월 중 전북도와 약정을 체결하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타운 부지의 신속한 매입 필요성에 따라 당초 11공사 소유인 만성동 부지를 이달 중순에 매입

완료했다. 전북도는 앞으로 금융타운 내 관광 숙박 시설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민간수요 등 여건을 고려해 전숙박시설의 민간사업자 유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전북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이 수행 중이며 도시계획 입안과 관련해 전주시와 사전 협의 중에 있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의뢰부터 투자심사까지 건립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행정절차 진행에 집중하겠다”며 “전북도 미래 핵심산업으로서 금융산업 육성을 통한 전북형 금융도시 조성과 전북금융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 유치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 금융타운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민의 전폭적이고 지속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며 “국민연금공단과 지역기반 금융기관들의 참여와 협력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가을 나들이철 다중이용시설 일제점검

전북도는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이용객이 증가하는 고속도로휴게소, 국·공립공원, 기차역, 터미널, 유원지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 확보를 위해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동안 일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4개 시·군과 함께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기차역, 국·공립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인근 식품취급시설과 푸드트럭 등 300여 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부패·변질 원료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아울러, 가을 나들이 철에 주로 섭취하는 국·공립공원, 고속도로휴게소 음식점의 조리식품, 푸드트럭 조리·판매 식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태풍 '타파' 피해조사·복구 총력

가로수 15주 전도 반출 등 송 지사 “안전 유의” 당부

전북도는 제17호 태풍 타파로 인해 도내 전역에 발효되었던 태풍주의보가 23일 오후 10시 20분부로 해제됨에 따라 본격적인 피해상황 조사와 신속한 복구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 접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도내 접수된 주요 피해는 공공시설 부문에서 가로수 15주가 전도채 반출됐으며, 사유시설 부문에서 주택 3동과 창고 1동이 지붕 일부가 파손되어 응급조치되었고, 농작물 피해도 벼도복과 침수피해 49ha가 신고된 상황이다.

태풍의 영향으로 지난 21~23일 오전 8시까지 도내에는 평균 124.5mm의 비가 내린 가운데 정읍시의 경우 174.5mm의 많은 비가 내려 정읍천에 22일 오후 2시 30분로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었으나 강우가 줄어들어 다른 위험없이 당일 오후 8시에 해제됐다.

또한, 침수우려로 전주시 마전교와

전주철교 언더패스 구간이 통제되었다가 22일 오후 7시부터 해제되었으며, 도내 군산공항 3개 노선과 여객선도 4개 항로도 23일 오전부터 차츰 정상 운행 예정이며, 도내 국립·도립공원 등 130개 탐방로도 탐방로 점검 후 23일 해제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남에 따라 피해상황 파악과 복구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며, 피해조사 및 복구현장에서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전북도는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조기 생계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서둘러 피해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신고는 늦어도 10월 2일까지 읍·면·동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afekor.ea.go.kr)를 통해 완료해야 한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5면 - 지역혁신신도시연구센터 선정

JJCTV 지방자치TV

| 지 | 역 | 문 | 화 | 콘 | 텐 | 츠 |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YouTube
KakaoTV
NAVER
Google
Dolby
ch.224
tv ch.253
B tv ch.285

JJCTV전북총국 : jjctvjeonbuk.com TEL :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222 송주빌딩 5F

JJCTV본사 : jjctv.co.kr TEL :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